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2019년 주요 사업계획

2019. 1. 24(목)



목 차

I 최근 자본시장 동향	1
II 2018년 본부 사업성과 분석	2
III 2019년 본부 주요 사업계획	5
1. 시장인프라 혁신	6
2. 상장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	9
3. ESG 투자활성화 지원 및 투자자보호 강화	11
4. 글로벌 투자정보제공 활성화	13
5. 신사업 발굴	14
(별첨) 2018년 유가증권시장 주요 지표	15

I. 최근 자본시장 동향

□ 국내 자본시장

- 최근 국내증시는 美中 무역합의 및 中경기부양 기대감,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상 기조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조로 상승('19.1월, +4.3%)
 - (지수) 금년 들어 외국인 매수세(+1.5조원)가 유입되며 최근 전기전자주('19.1월, +8.7%)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 (거래) 증시 안정으로 변동성 축소('17년 19.0%→'18.1월 14.8%)되며 거래대금이 5조원대 초반(5.1조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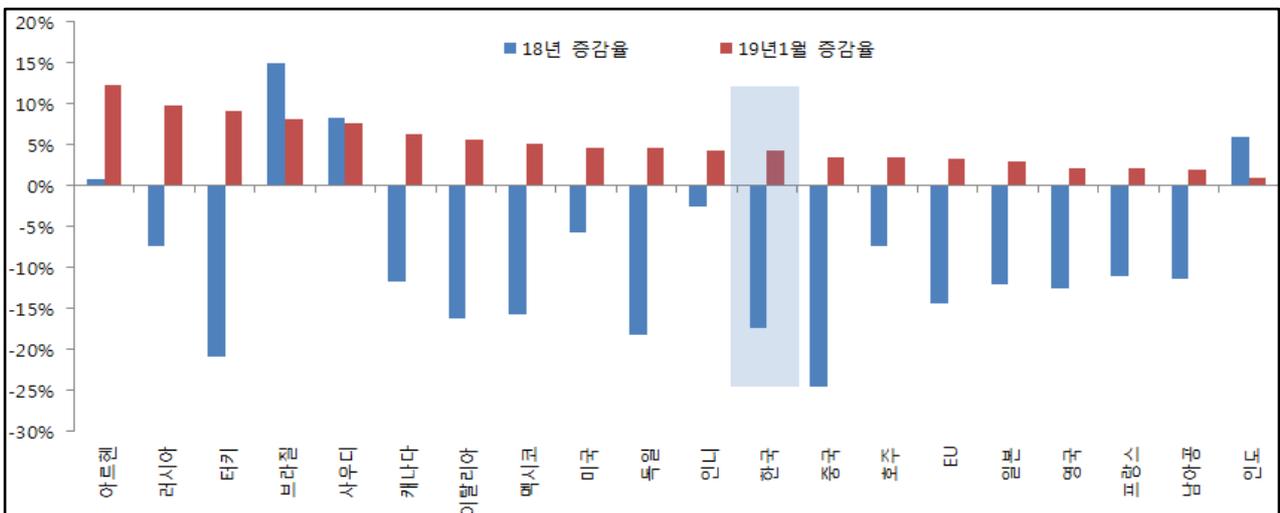
< 유가증권시장 주요 지표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1.23
KOSPI(p)	2,026.4	2,467.4	2,041.0	2,127.7
(등락률(%))	(+3.3)	(+21.8)	(-17.3)	(+4.3)
일평균거래대금(조원)	4.5	5.3	6.5	5.2
시가총액(조원)	1,308	1,605	1,344	1,403

□ 글로벌 자본시장

- '18년 글로벌 증시는 美中무역분쟁 지속과 금리정상화 등으로 '08년 이후 최대폭 하락하였으나 '19년 들어 반등세 시현

< G20 국가 '18년 vs. '19.1월 등락률(%) >



II. 2018년 본부 사업성과 분석

①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장조성대상종목을 회전율이 낮은 대형주 및 신규상장종목까지 확대하여 시장 전반에 시장조성자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 기존 82종목이던 시장조성종목을 500종목까지 확대하여 시장 시총의 49% 커버
- 액면분할기업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대폭 단축*(3/15 시행)하고 이를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칙화하여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
 - * (기존) 약 3주간 → (개선) 3일, 시행 이후 14사 적용
- 1회 호가제출한도를 축소*하여 증권사의 주문실수 리스크를 완화
 - * (기존) 상장증권수의 5% ⇒ (개선) 1% (9/17 시행)

② 종합자산관리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 '18년 ETF·ETN 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효율적 자산관리수단 제공

< 2018년 ETF·ETN 시장 현황 >

구분	상장종목수			자산규모		
	'17년말	'18년말	증감율	'17년말	'18년말	증감율
ETF	325종목	413종목	27.1%	35.6조원	41.0조원	15.2%
ETN	184종목	206종목	12.0%	5.2조원	7.2조원	38.5%

- 또한, 코스닥 150 등 코스닥 관련 신상품* 도입을 통해 코스닥 투자 활성화**에 기여

* 코스닥 150 ETF(7종목), KRX 300 계열 ETF(18종목), 코스닥 150 손실제한 ETN(7종목) 등
 ** 코스닥 및 혼합지수(코스피·코스닥) ETF 순자산총액: ('17) 5.2조원 → ('18) 8.5조원, +62.6%

③ 시장친화적 선진 공시환경 구축

- '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정착중*으로, 경영투명성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현황: '17년(70사) → '18년(95사) [35.7% 증가]
- 특히, 시장 영향이 큰 유가증권시장의 대규모법인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가 확정*됨에 따라 상장법인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의 전기를 마련
 - * '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 대상('18.12.1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적극적 사전예방 활동* 및 상장법인 공시 의무 이행노력이 결합되어 공시의무 위반 감소 추세 지속**
 - * 공시책임자 담당자 간담회, 공시제도 설명회 등 공시교육 시행(508사, 865명) 등
 - ** 불성실공시 건수: '14년(29건)→'15년(25건)→'16년(17건)→'17년(11건)→'18년(11건)

④ 상장정책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우량기업 상장 촉진

- 적극적인 상장유치 노력으로 상장추진기업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예비심사신청 : 18사('17) → 27사('18))
 - * 회계규제 강화, 증시 불황에 따라 대형 IPO기업의 공모 철회 또는 연기로 공모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상장기업수는 전년 수준 유지

【 연도별 코스피시장 IPO 현황 】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심신청기업수(사)	27	20	16	15	25	31	18	27
상장기업수(사)	31	17	11	12	19	18	21	19
공모금액(조원)	2.94	0.75	0.66	3.48	2.40	4.27	4.45	0.9

- 국민이 소액으로 부동산투자 및 안정적 배당수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리츠 상장제도를 전면 개편
 - 부동산 의무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리츠 자산의 20%한도 내에서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정) 폐지
 - 자기자본 요건 심사시점 개선(예비심사 신청일→신규상장신청일)
 -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5 Repo시장 등 채권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 '18년 Repo시장은 참가자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거래규모 및 참가자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
 - * 거래 : ('16) 64.2조 원 → ('17) 76.4조 원 → ('18) 138.8조 원 [+81.7%]
 - ** 참여회원 : ('16) 12사 → ('17) 16사 → ('18) 23사 [+7사]
-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인 기일물 거래가 높은 비중(93.3%, '18년)을 차지하는 등 질적으로도 발전
- 시장참가자들의 ESG채권 관련 이해도를 제고하고 발행·상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채권 신상품 활성화* 기반 조성
 - * 최초의 원화 그린본드 등 총 5종목(1.35조원)의 ESG채권 상장 유치

6 글로벌 Key Player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해외 국부펀드, 연기금 등 글로벌 롱텀펀드* 대상으로 코스피시장 마케팅 집중
 - * (유럽) APG, NBIM, PGGM, PFA (아시아) CIC, GIC, Temasek (중동) ADIA 등
-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 한국 내 정책당국 및 기업 등의 주주권리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노력 적극 홍보
-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IR을 신규상장 및 우량 강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스피 상장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Ⅲ. 2019년 본부 주요 사업계획

세 부 목 차

1. 시장인프라 혁신	6
① 매매거래정지 단축	6
② 공매도 제도 및 인프라 개선	6
③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 추진	7
④ Repo 제도 개선	8
⑤ ETF·ETN 관리제도 개편	8
2. 상장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	9
① 대형 IPO 추진	9
② 코스닥 및 투자유망 ETF·ETN 상품 상장	9
③ 상장요건 개선	10
3. ESG 투자활성화 지원 및 투자자보호 강화	11
① ESG 채권 상장 활성화 추진	11
② ESG 투자정보 확대	11
③ 공시제도 개선	12
④ 상장폐지제도 개선	12
4. 글로벌 투자정보제공 활성화	13
① 한국자본시장 투자정보 확산채널 구축	13
② 북미 마케팅 강화	13
③ 다양한 금융상품정보 제공	14
5. 신사업 발굴	14
① 미래성장을 위한 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4

① 매매거래정지 단축 : **주식시장부**

- **(추진배경)** 우리 시장은 정보확산,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매매 거래정지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외 거래소에 비해 매매거래정지 사례가 많고 기간도 길어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개선 추진
- **(추진계획)** 가격발견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동이 원활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매거래정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① **(정보확산)** 기업의 중요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공시 등이 발생한 경우 30분간 정지하고 있으나,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하여 정지시간 단축
 - * (예) (현행) 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 정지 → (개선)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
 - ② **(투자자 보호)**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1일에서 사유해소 시까지 정지하고 있으나, 정지 이외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되 거래는 지속되도록 개선
 - * (예) (현행) 관리종목 지정, 상폐 또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1일~사유해소 시까지 장기간 정지 → (개선) 사유별로 정지 축소 또는 폐지 후 매매방식 변경 등 검토

② 공매도 제도 및 인프라 개선 : **주식시장부**

- **(추진배경)** 무차입공매도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공매도 관련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증시 신뢰도 저하 방지를 위하여 공매도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
- **(추진계획)** 공매도 관련 인프라(시스템)는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 기관*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력하여 구축

*** 기관별 역할**

- 거래소 : 위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에 결합할 장종 실시간 거래정보 제공,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 마련
- 위탁결제원 :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 코스콤 : 전산개발

-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19년 중 상반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그 외에도 사전확인 강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공매도 관련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

③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 추진 : [주식시장부](#)

- **(추진배경)**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주문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에 대비하여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위험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한맥증권, 삼성증권 사건과 같이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이고, 우리 증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제를 유발
 - * HTS, MTS 등 주문매체의 변화, 고빈도매매(HFT)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남
 - 또한, NYSE(미국), LSE(영국), DB(독일), Euronext(프랑스), JPX(일본) 등 주요 선진거래소의 경우 이미 거래취소제도를 운영 중
- **(추진계획)**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금년 말 추진 예정

④ Repo 제도 개선 : **채권시장부**

- Repo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으로 시장 참가자를 확대하고, 거래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시장참가자 확대) 증권사 및 은행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장내 Repo시장에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
 - (담보채권 대체 원활화) 특정한 종류의 계약으로 제한되어 있던 채권 대체를 모든 계약에 대해 허용
 - (거래대상채권 확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거래를 허용하고, 거래대상 지정을 위한 규모요건(상장잔액 2,000억원 이상)을 대폭 완화
- ※ 금융위 협의를 거쳐 '19.1Q 규정 개정 추진

⑤ ETF·ETN 관리제도 개편 : **증권상품시장부**

-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고 숨은 규제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 외부 산출기관에 대한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ETF·ETN 지수 산출기관 진입요건* 완화
 - * 2년 이상의 업력, 5명 이상의 전문인력, 20개 이상의 지수 보유 등
 - LP(증권사)의 유동성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발행사(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상장제한 개선
 - 자산 운용이 곤란한 해외자산 등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장외파생 상품을 중요 운용수단으로 하는 합성 ETF의 상장제한 개선 등
- 이 외에도 주요국 제도 조사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상장 및 시장관리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

① 대형 IPO 추진 : **상장부/증시마케팅실**

- 다수의 1조원 이상 대형 공모예정기업*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 성공시 공모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

* 현대오일뱅크(2조), 홈플러스리츠(1.6조), 교보생명(1~2조) 등

- '18년은 대형 공모기업*의 공모 철회 또는 연기로 공모규모가 축소

* SK루브리컨츠(1.3조) 철회, 현대오일뱅크(2조) 연기 등 총 4.8조

【 최근 3년 유가증권시장 공모 현황 (단위 : 조원) 】

연도	기업수	총공모금액	대형공모(1조 이상)	대형공모 제외시
'16년	14	4.3	3.1*	1.2
'17년	8	4.4	3.8**	0.7
'18년	9	0.9	-	0.9

* '16년 : 삼성바이오로직스 2.2조원, 두산밥캣 0.9조원

** '17년 : 넷마블 2.7조원, ING생명 1.1조원

- 지배구조 개편 대기업, 공모리츠 등 IPO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 대상 사전 상장컨설팅 등 상장유치 마케팅 강화

* 지배구조 개편기업, 공모리츠, 4차 산업혁명 및 Life Style 변화 선도기업, PEF투자기업, 부산기업, 해외진출 한국기업

② 코스닥 및 투자유망 ETF·ETN 상품 상장 : **증권상품시장부**

- 코스닥 관련 상품을 지속 상장함으로써 코스닥 투자 확대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지원

- 코스닥150 등 코스닥 전용 ETF 및 KRX300 섹터, KRX Mid 200 등 코스닥 편입 ETF 등을 지속 출시

-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춘 투자유망한 ETF·ETN 상품 도입을 통해 국민 자산관리수단 제공
 - 글로벌 대표 상품을 재간접 ETF 형태로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자산배분 라인업 강화
 - 해외리츠·4차산업 ETF, 옵션전략지수를 기초로 하는 손실제한 ETN 등 국내외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 상장

③ 상장요건 개선 : **상장부**

- (단독요건 도입)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향후 성장잠재력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요건 도입
 - *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시장평가 및 성장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 (주식분산요건 완화) 증시침체기에 충족하기 곤란한 주식분산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장부담 완화
 - * “상장제도 및 상장심사업무에 대한 IB 및 신규상장기업 대상 의견수렴(‘18.12월중)” 결과 주식분산요건 충족이 가장 곤란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
- (이익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 기업실적 평가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세전이익으로 이익기준을 개선

① ESG 채권 상장 활성화 추진 : 채권시장부

- ESG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ESG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
 - * ESG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발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KRX 채권시장에 5종목이 상장되어 있음
- ESG 채권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전용섹션(정보포털)」을 개발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세미나 개최 등 투자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
 - * 해외 거래소의 경우 전용시장 개설 및 전용 상장기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상장 수수료 면제, 인증비용 지원, 우수기관 포상 등) 지원
 - **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의 개념이 생소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 해결 필요

② ESG 투자정보 확대 : 공시부

- 최근 쉰 세계적으로 책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재무적 정보 外 非재무적 정보인 ESG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 * 1)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 2) '16년 전세계의 ESG 투자 규모는 약 23조 달러
- 지배구조(G)에 관해서는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됨에 따라 정보 확대가 가시화 될 예정
 - * 유가증권시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 대상
- 상장법인의 환경(E), 사회책임(S)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 및 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선별한 후 기업들에게 정보제공 유도를 추진

③ 공시제도 개선 : 공시부

- 기업공시의 자율성·책임성을 강조하는 공시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시사항 및 불성실공시 제재 등의 정비·개선 추진
 - (수시·자율공시 관련) 효율적 공시관리와 상장유지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열거된 공시사항을 정비*
 - * 현재 열거된 수시공시 및 자율공시의 각 공시항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불성실공시 관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불성실공시 제재 방법·수단을 개선*
 - * 공시위반시 적용되는 현행 제재 방법·수단(벌점부과, 전산공표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개편

④ 상장폐지제도 개선 : 상장부

- (퇴출기준의 현실화) 기업 및 경제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퇴출 기준을 상향하여 퇴출기준의 실효성 제고
 - * (예) 매출액 미달(50억 → 100억), 시가총액 미달(50억 → 150억)
- (실질심사대상 확대) 부실기업 정비 및 자구기회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
- (이의신청기회 보장)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하여 개선기회 제공
 - *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등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자구가능기업에 개선기간을 부여

① 한국자본시장 투자정보 확산채널 구축 : 증권시장마케팅실

-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취득 지연 및 누락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Fair Valuation’ 지원
 - 거래소가 국부펀드.연기금 등 Global keyplayer 대상 한국시장 주요 정책정보 등을 직접 ‘배달 및 설명’ 서비스 실시
 - 외국인 개인투자자에 맞춘 현행 KRX 영문사이트와는 별개로 기관투자자 특성에 맞춘 영문투자정보 Portal 마련 추진
 - 또한, 지배구조 평가기관, 의결권 자문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정보 확산 촉진

② 북미 마케팅 활성화 : 증권시장마케팅실

- 시장변동성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펀더멘탈 및 지배구조 등 장기 관점을 중시하는 롱텀펀드 등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
 - 한국시장 최대 투자자*인 북미지역의 연기금 및 대학기금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반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내실화
 - * (한국 주식보유 현황) 미국 42.6%, 영국 8.2%, 룩셈부르크 6.3%, 싱가포르 5.4% ('18.11월)
 - **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기금), CPPIB(캐나다연기금), 하버드.예일 대학기금 등
 - 既 형성한 유럽.아시아.중동 등 주요 국부펀드.연기금 등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 (유럽) APG, NBIM, PGGM, PFA (아시아) CIC, GIC, Temasek (중동) ADIA 등

③ 다양한 금융상품정보 제공 : 채권시장부

- 상장 및 비상장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정합성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간 정보 불균형 해소 및 금융상품시장 활성화를 도모

* KRX는 국내 유일의 표준코드 발급기관으로서 매년 신규 발행되는 7만여 종목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관 중

- 보유정보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정보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금융상품의 해외 직구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발행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

5

신사업 발굴

① 미래성장을 위한 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 증권시장마케팅실

- 블록체인을 포함한 글로벌 I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거래 비용절감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사업 발굴
 - 우선적으로 '19년에는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을 조사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대상 업무를 구체화
 - 증권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증권거래시 처리속도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방안 모색

【 별첨 】

2018년 유가증권시장 주요 지표

구 분		'17년	'18년	증감률(%)	
주식 시장	KOSPI 지수(pt)		2,467.49	2,041.04	△12.3
	KOSPI200 지수(pt)		324.74	261.98	△19.3
	상장기업수(개)		774	788	+1.8
	시가총액(조원)		1,606	1,343	△16.3
	거래 대금	일평균(조원)	5.33	6.55	+22.9
		연간(조원)	1,294	1,598	+23.5
	신규 상장	기업수(사)	21	19	△9.52
		공모금액(조원)	4.45	0.91	△79.55
채권 시장	상장잔액(조원)		1,658	1,711	+3.2
	일평균거래(조원)		10.0	9.9	△0.1
증권 상품 시장	ETF	상장종목(개)	325	413	+27.1
		시가총액(조원)	35.57	40.84	+14.8
		일평균거래(억원)	9,792	14,619	+49.3
	ETN	상장종목(개)	184	206	+12.0
		시가총액(조원)	5.20	7.21	+38.8
		일평균거래(억원)	449	422	△5.9
	ELW	상장종목(개)	1,930	2,534	+31.3
		시가총액(조원)	6.21	13.27	+113.7
		일평균거래(억원)	890	1,196	+34.4